

# 貝塚의 層位形成에 대한 一考察

- 경상지역 원삼국·가야시대 패총을 중심으로 -

俞炳一\*

## 목 차

- I. 序 言
- II. 層位의 概念 및 種類
- III. 對象遺蹟 層位 概觀
- IV. 層位考察
- V. 結 言

## < 요 약 >

패총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취락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패총에서 출토한 자료의 정보성은 취락인의 생계유형과 방식을 추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유적이다. 이 글은 패총이 함유한 여러 정보 가운데에 가장 기본적인 층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패총의 층위범주는 인간행위에 의하여 퇴적된 층을 기준으로 貝粉層, 混土貝層, 貝殼層, 粘土層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은 층위의 유형분류로서 평면 및 수직적인 퇴적의 정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면적인 퇴적 유형은 독립 구릉의 비탈진 곳의 여러 장소 퇴적된 點在 I型, 산지에서 연결되는 구릉사면의 몇몇 장소에 분포하는 점재 II형, 주거지 주변에 한 개소에 패총이 분포하는 單獨型으로 분류하였고, 수직퇴적 유형은 패총이 형성되는 지표의 모양새에 따라 舊地表를 이용한 경우, 先代 遺構上面을 이용한 경우, 인위적으로 굴착한 구덩이에 퇴적되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층위형성은 퇴적물 폐기장소에 따라 달라질 개연성이 높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례로 층위의 근간을 이루는 패분층, 혼토패층, 패각층, 점토층에 대하여 퇴적물의 구성요소와 형성원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형태의 패총과 규모가 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해지역과 창원지역을 비교검토하였는데, 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패총의 입지는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여야 하고, 패총 주변에 생산활동과 대내 및 대외 교류가 양호한 지형여건이 갖추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패총이 점재형으로 형성되어 규모와 조성시점이 장기간이어야 하며, 또한 패총을 포함한 복합유적이어야 한다.

[주제어] 貝塚, 層位, 點在, 立地, 堆積, 廢棄

\* 蔚山發展研究院 文化財센터 연구원

## I. 序 言

일명 쓰레기장으로 인식되는 패총은 여러 층들이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패총에 쌓여 있는 자료는 다양한 인간행위를 알 수 있는 유물들이 출토하기 때문에 생활상을 복원하는데 있어 어떠한 유적의 자료보다도 활용가치가 높다. 층위 또한 여러 층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적의 시간적인 위치, 다시 말해서 형성-운영-소멸과정은 물론 패총과 관련된 유적의 존속시기와 규모 등도 알 수 있다. 층위는 패총뿐 만 아니라 패총 이외의 고고학적 유적에서도 중요하다. 유적에서의 층위는 유구의 시간적인 위치와 배열뿐 만 아니라 층위를 형성시킨 인간행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 유적에서의 층위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적에서 층위의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성과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에 조사되고 발간되는 보고서와 몇몇의 연구자에 의하여 발표되고 있는 것은<sup>1)</sup>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분위기가 고조되어야 할 것이다. 패총유적은 층위와의 대결이라 할 정도로 조사 시작부터 완료될 때까지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층위에 대한 자료정리 및 분석단계에서도 난감한 일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패총에 퇴적된 층위가 누층의 법칙처럼 먼저 퇴적된 층이 뒤에 퇴적된 층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개념이 이론에 불과할 정도로 유적에서 복잡하게 확인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패총 층위는 자연 경사면에 퇴적물이 쌓여 층위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으로서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내·외부 요소에 의하여 교란되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글을 준비한 것은 층위가 고고학 유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다루어 왔던 패총유적의 층위형성과 그 원인에 대하여 알아 보기 위함이다. 대상유적은 발굴조사된 원삼국·가야시대의 남해안 패총이며, 논리전개상 필요할 경우 성격이 규명된 시굴 및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도 대상으로 하였다.

## II. 層位의 概念 및 種類

대부분의 고고학 유적은 유구 형성 당시의 지표층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한 후 유구를 조성-

1) 층위발굴과 층위해석을 심도 있게 다룬 유적은 김해 수가리패총 및 범방패총, 오이도패총, 해남 군곡리 패총, 보성 금평유적 등이며, 개인 연구 논고는 아래와 같다.

가. 李熙濬, 1986, 「相對年代決定法의 一考察」『嶺南考古學』嶺南考古學會 2, 1-29

나. 秋淵植, 1993, 「貝塚의 形成過程」『韓國考古學報』韓國考古學會 29, 77-111

다. 신숙정, 1994, 『우리나라 남해안지방의 신석기문화 연구』(서울 : 學研文化社) 150-179

운영-폐기되는 과정을 거친다. 발굴조사는 유구가 형성되는 과정의 역순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평면상에서 토층 변화는 상당히 중요하다. 토층 변화는 유구의 형성과정은 물론 유구와 유구, 유구와 유물간의 상관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기도 하다. 유적에서의 층은 하나의 층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층들로 나타난다. 여러 층은 수직적으로 중첩된 것을 말하며 이를 成層이라 하고, 유적의 어떠한 구체적인 층을 지칭하는 層位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sup>2)</sup>

層位는 기본적으로 地層 또는 地質層位, 遺物包含層, 文化層位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층(stratum) 또는 지질층위(geological layer)은 모래, 점토, 자갈과 같이 입자의 크기가 다르거나 광물 성분이 다른 퇴적물이 각각 층상으로 배열된 것을 말하며, 색깔, 구조, 입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sup>3)</sup> 고고학 유적에서는 유구가 굴착된 생토층과 그 아래에 자연적인 행위요소에 의하여 퇴적된 층위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간행위와 관련된 요소가 전혀 없다. 遺物包含層(archaeological layer)은 단애부나, 단면이 드러난 층위에 유물이 포함된 층을 말하며, 발굴조사에서 유물과 관련된 유구가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인간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유적임은 틀림없다.<sup>4)</sup> 文化層位(cultural layer)는 간단히 말하면 지질층위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각각의 층이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층위와 자연적인 요소와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층위로 세분할 수 있을 것 같다.(삽도 1) 이러한 문화층위의 형성과정을 유적별로 비교하면 먼저, 패층의 경우는 점토 및 모래, 그리고 부식토와 패각과 유물이 포함된 混土貝層, 유물과 패각이 혼합된 貝殼層, 재와 목탄이 함유된 소토층이 될 수 있고, 무덤의 경우는 봉분을 이루는 성토층과 무덤 기초를 다지는 판축층, 무덤의 목관(곽) 및 석곽의 보강토와 바닥을 고를 때 사용하는 토층이다. 그리고 주거지 경우는 벽체 보강토, 상면에 쌓여 있는 적석층, 바닥 정지토가 여기에 해당되며 성의 경우는 토성의 판축층과 석성의 편축을 지탱케 하는 흙이 해당될 것이다.

패층 층위는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층들이 평면적형태, 크기가 수직적으로 다르게 퇴적되어 있다. 그리고 퇴적물은 토기, 골각기, 철기, 동물유체, 모래, 점토, 실트와 목탄, 재 등이 혼합되어 있고, 유물 또한 시기를 달리 하는 것이 같은 층이나 유사한 레벨에서 출토하기도 한다. 층위에 포함되어 있는 유물은 주변에 있는 거주지에서 사용한 후 쓸모 없는 것을 버린 것이며, 식용이나 생활유지에 필요한 자연유물 또한 동일한 과정으로 버

2) 李熙濬, 1986, 「앞글」(주 1의 가) p.7.

그러나 필자는 수직적으로 중첩된 층들의 상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퇴적된 층의 상하관계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層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 양승영, 2001, 『지질학사전』(서울 : 교학연구사) p.672

4) 유물포함층은 기본적으로 지표에 유물은 확인되지만 유물과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유물포함층은 대부분 인간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유적이라면 유물포함층 그자체를 하나의 유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취락 주변에 의례행위로 형성된 유물 폐기장 등이 해당될 것이다.

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패총에서 확인되는 모든 자연유물은 모두가 사용한 후에 버려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식용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육지달팽이와 소형동물 및 파충류 뼈, 작은 담수 및 해수산 조가비 등은 식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패총에서 확인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패총은 대부분 자연경사면에 부산물이 퇴적되어 있지만, 마산 현동Ⅲ 지구 패총, 창원 사화패총 및 남산패총은 경사면에 구덩이를 굴착한 후 부산물을 버려서 형성된 것이다. 양자 유적의 형성과정 및 원인에 대하여는 뒤에 후술하겠지만 층위는 양자 모두 지질학의 累重의 法則(law of superposition)에 따라 층위 퇴적 순서의 新·舊 관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그 이유는 퇴적된 지형의 기울기와 동일한 장소에서의 반복적인 폐기행위, 유적의 입지, 층위자체의 이동과 역전현상, 인위적 영향 및 자연적인 교란, 그리고 퇴적이 완료된 후 발생하는 후퇴적 단계에서도 층위 교란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패총 층위는 발굴조사때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반적이며, 누층의 법칙에 따라 신·구 관계를 알 수 있는 유적은 이론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다.

패총 층위는 평면적인 형태, 크기와 수직적인 퇴적양상이 유적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패총의 형태와 두께는 유적의 점유기간과 거주 인구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유적 형성인의 정착과 이동생활의 차이, 생계방식의 차이, 유적의 형성 입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직적인 퇴적양상이 다른 것은 위의 요인과도 연관이 있지만 지형입지와 폐기장소 및 방향, 횡수, 속도 등에 따라 층위의 퇴적양상이 다를 것이고, 개별 층위의 기울기와 두께도 당연히 유적마다 다를 것이다.

### Ⅲ. 對象遺蹟의 層位 概觀

#### 가. 昌原地域

##### 1. 加音丁洞貝塚

창원시 가음정동의 해발 75m 당산에는 동서남북에 패총이 5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5개소 패총은 해발 45-70m에 대부분 분포하며, 그 가운데에 남쪽 사면에 있는 I 지구 패총은 1993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하였다. 상기 패총은 독립성 구릉사면에 위치하며, 층위는 위로부터 표토층, 혼토패분층, 순패각층, 암적색점토층, 흑갈색점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층위는 지형의 경사면을 따라 퇴적되어 있으며, 기울기는 20-25° 정도이다. 순패각층의 평면은 타원형에 가깝고 범위는 750-800cm, 두께 60cm이다. 출토유물은 무문토기, 적갈색연질토기, 회청색경

질토기, 토제품, 철기, 골각기, 동물유체 등이며, 조사구역의 위 부분에서 패총보다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구상유구가 확인되었다.<sup>5)</sup>

## 2. 外洞 城山貝塚

가음정동패총의 남쪽 500m 정도에 있는 해발 50m 정도의 독립성 구릉사면에 3개소에 패총이 있으며, 1974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사하였다. 동구패총은 해발 20m 정도에 분포하며 위로부터 지표층, 패각층, 적갈색부식토층, 회갈색부식토층이 퇴적되어 있고, 패각 범위는 1,000×1,500cm이다. 서남구 패총은 해발 30-40m에 분포하며, 지표층, 점토층, 패각층, 흑갈색점토층, 황갈색점토층이 차례로 퇴적되어 있다. 층위 기울기는 대체로 20-25°이며, 패각층 범위는 50×20m이다. 북구 패총은 해발 35-42m 정도에 분포하며, 지표층, 패각층, 암갈색점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층위 기울기는 대략 40-50°이며, 패각층 범위는 20×40m 정도이다. 출토유물은 3개소 패총이 유사하며, 무문토기, 석기, 적갈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회백색연질토기, 토제품, 철기, 골각기, 동물유체 등이 출토되었고, 북구 및 서남구 패각층 아래에서는 야철지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북구의 패총 상부에는 삼국시대 성이 축조되어 있다.<sup>6)</sup>

## 3. 內洞貝塚

창원 삼동동용관묘의 남쪽 500m 정도에 있는 독립성구릉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며, 1988년에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단애부를 조사하였다. 단애부에서 확인된 층위는 지표층, 패각층, 점토층, 패각층, 점토층이며, 상기 토층은 성격을 알 수 없는 넓은 V자의溝에 퇴적되어 있다. 층위의 기울기는 단애부의 수평부분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알 수 없으며, 적갈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토제품, 철기, 골각기, 동물유체 등이 출토하였다. 그리고 점토층 아래는 수혈을 직각으로 굴광한 유구도 확인된다.<sup>7)</sup>

## 4. 南山貝塚

창원읍성 남쪽에 있는 해발 100m 정도의 남산이라는 독립성 구릉이 있는데, 패총은 구릉의 남쪽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해발 91-95m 정도에 위치하는 패총은 구덩이에 폐기된 후 삭평-

5) 李柱憲, 兪炳一, 金良美, 1994. 「昌原加音丁洞貝塚發掘調査報告書」 『昌原加音丁洞遺蹟』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學術調查報告 第2輯, pp.135-209  
 6)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6, 『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調査報告』  
 7) 가. 慶北大學校博物館, 1990. 『原三國時代 文物展』 慶北大學校 開校44週年 記念圖錄, p.98.  
 나. 兪炳一, 2000. 「昌原 內洞貝塚에서 출토한 사슴 뼈에 대한 一考察」 『인문과학연구』 (동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집, pp.203-239

채퇴적-소각행위가 반복되어 형성되었으며, 위로부터 지표층, 패분층, 혼패층, 패각층, 점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층위의 기울기는 대략 20°이며, 패층의 범위는 18×12m 정도이다. 그리고 구릉 정상부와 사면에는 무문토기시대의 주거지와 환호, 패층이 있고, 원삼국시대는 주거지와 환호, 폐기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원삼국시대 패층에서는 적갈색연질토기, 회백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토제품, 철기, 골각기, 동물유체 등이 출토되었다.<sup>8)</sup>

### 5. 沙火貝塚

남산패층의 남동쪽에 위치하는 이 패층은 독립성구릉(떡뫼 183m)의 남서쪽 사면에 분포하며, 해발 25m 정도에 해당한다. 패층은 넓은 V자 형태의 구덩이에 퇴적되어 있으며, 층위는 위로부터 표토층, 순패각층, 점토층으로 구분된다.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부족강 및 복족강이 출토하였고, 동물 뼈와 골각기는 확인되지 않았다.<sup>9)</sup> 이 패층은 남쪽에 있는 반계동취락유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나. 馬山·鎭海·固城地域

### 1. 馬山 縣洞 Ⅲ·Ⅳ地區 貝塚

현동패층은 산지의 구릉사면에 위치하며, 해발 55-58m 지점에 2개소의 패층이 분포하고 있다. 1989년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Ⅲ·Ⅳ지구 패층은 직선거리 40m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Ⅲ지구 패층은 지표층, 혼토패층, 갈색점토층, 흑갈색점토층으로 퇴적되어 있으며, 층위 기울기는 10-13° 정도이다.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회백색연질토기, 토제품, 철기, 골각기, 동물유체가 출토하였고, 점토층 하부에 원형에 가까운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sup>10)</sup> Ⅳ지구 패층은 구덩이를 굴착한 후 폐기물을 버렸으며, 단면토층상으로 폐기-퇴적-굴착행위가 반복되어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층위는 지표층, 점토층, 패각층, 혼토패층, 점토층이며, 적갈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토제품, 철기, 골각기, 동물유체 등이 확인되었다. 이 패층은 현동유적 Ⅱ·Ⅲ지구의 주거지와 Ⅰ·Ⅱ지구의 고분군과 관련 있는 복합유적인 것으로 보여진다.<sup>11)</sup>

---

8) 가. 俞炳一, 1998, 『原三國時代 貝塚出土 動物遺體와 骨角器의 研究』 東義大學校碩士學位論文, pp.27-28  
 나. 昌原大學校博物館, 1998, 『昌原의 先史·古代聚落』 昌原大學校博物館 概觀

9) 가. 俞炳一, 1998, 『앞글』 (주 8), p.34.  
 나. 昌原大學校博物館, 1995, 『昌原市 文化遺蹟 精密地表調査報告書』 學術調査報告 第7輯, pp.33-34

10) 俞炳一, 1992, 「馬山縣洞Ⅲ地域 貝塚調査報告」 『韓國上古史學報』10號, pp.728-731

11) 李盛周·金亨坤, 1989, 『馬山 縣洞遺蹟』 昌原大學校博物館 學術調査報告 第3輯

## 2. 鎭海 龍院貝塚

1995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용원패총은 해안가에 있는 독립구릉 사면에 분포한다. 패총은 경사진 사면에 형성되어 있으며, 표준토층은 지표층, 혼패층, 점토+패각층, 사질점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층위 기울기는 대략 20° 정도이며, 패총의 규모는 30×15m이다.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 회백색연질토기, 경질토기, 토제품, 철기, 골각기, 동물유체 등이 출토하였으며, 구릉 정상부에는 주거지와 주혈군, 수혈유구가 조성되어 있다.<sup>12)</sup>

## 3. 鎭海 熊川貝塚

산지의 구릉사면에 위치하는 이 패총은 1961, 64년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하였다. 패총은 해발 215m 지점에 분포하며 층위는 E지구를 참고하면 위로부터 부식토층, 점토층, 패각층, 소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패총에서 출토한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회백색연질토기, 토제품, 철기, 골각기, 동물유체이며 아래층에서 무문토기, 석기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패총 인접 지역에 응천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sup>13)</sup>

## 4. 固城貝塚

동의동패총으로도 불리어지는 이 패총은 송화동고분군의 남동쪽에 있는 당산(해발 50m)의 구릉사면에 위치한다. 복합유적에 속하는 이 패총은 구릉 정상부에는 제사와 관련된 수혈유구,<sup>14)</sup> 구릉사면에는 주거지가 분포하기도 한다. 패총의 층위는 표토층, 흑갈색점토층, 부식토+패각층, 흑갈색부식토층, 적갈색부식토층이며, 기울기는 6-10° 정도이다.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와질토기, 골각기, 변형점토대토기, 석기 등이 출토하였다.<sup>15)</sup>

## 다. 梁山·金海地域

### 1. 梁山 多芳里貝塚

196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한 이 패총은 해발 120m의 구릉 사면에 위치한다. 이 구릉은 산지에서 뺀어 내린 것으로서 사면의 2개소에 패각이 형성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한 패총은 평탄한 구릉에 있는 것으로서 위로부터 표토층, 혼토패층, 흑색점토층, 갈색점

12) 沈奉謹·李東注, 1996, 『鎭海龍院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24冊

13) 金廷鶴, 1967, 『熊川貝塚研究』, 『亞細亞研究』(고려대학교) 10-4號

14) 김두철, 2000, 『祭祀考古學의 研究成果와 課題』, 『고고학의 새로운 지향』(부산북천박물관 제4회 학술발표회), pp.43-68

15) 金鍾徹 外, 1992, 『固城貝塚』,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4책, pp.1-160

토층으로 퇴적되어 있으며, 방어호 내부의 층위 기울기는 40° 정도이다.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회백색연질토기, 토제품, 철기, 골각기, 동물유체가 출토하였으며, 주변에는 수혈유구와 혼토파층이 유입된 방어환구가 확인되었다.<sup>16)</sup>

## 2. 金海 會峴里貝塚

봉황대유적과 인접하는 회현리패층은 해발 46m의 봉황대 구릉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소구릉에 위치한다. 소구릉의 동쪽과 서쪽사면에는 혼토파층이 분포하고<sup>17)</sup>, 남쪽 사면에는 상당히 두꺼운 순패각층이 퇴적되어 있다. 이 패층은 梅原末治·浜田耕作에 의하여 A지구가 발굴되었고, 부산대학교 고고학과에서 층위전사를 위하여 A지구를 재조사하였다. 부산대학교고고학과에서 조사한 층위는 모두 17개의 자연퇴적층으로서 1~15층은 패각을 포함하고 있지만 순패층은 없다. 1~15층은 사질성이 강한 토양과 패각이 혼재된 혼패층으로 보여지며, 17층은 회흑색사질토로서 패층형성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 동쪽 단벽의 층위 기울기는 40~45°이며, 유물은 무문토기, 와질토기, 도질토기, 적갈색연질토기, 야요이토기, 토제품, 철기, 한경, 골각기, 동물유체 등이 출토하였다.<sup>18)</sup>

## 3. 金海 鳳凰臺貝塚

대성동고분군의 남쪽에 위치하는 봉황대유적은 해발 46m정도의 독립성구릉이며 남북방향으로 구릉이 형성되어 있다. 봉황대유적은 주거지, 패층, 주혈, 구, 유물포함층이 어우러진 복합유적으로서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6세기까지 조영된 유적으로 밝혀졌다. 패층은 구릉의 서쪽과 남쪽사면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1트렌치 층위는 지표층, 혼토파층, 패각층, 혼토파층, 2트렌치는 지표층, 혼토파층, 패각층, 갈색토층, 혼토부식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층위는 선대 주거지와 그 상부에 퇴적되어 있으며, 기울기는 10° 정도이다. 유물은 무문토기, 석기, 적갈색연질토기, 와질토기, 도질토기, 토제품, 철기, 골각기, 동물유체 등이 출토하였다.<sup>19)</sup>

## 4. 金海 府院洞貝塚

1980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이 유적은 김해시청의 동쪽 구릉사면에 위치한다. 이

16) 尹武炳 外, 1993, 「梁山 多芳里貝塚 發掘調査報告」 『清堂洞』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5책, pp.207-288  
17)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1, 「金海 鳳凰臺 周邊 消防道路 開設區間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資料集」 現場說明會 資料2  
18) 배진성, 1999, 「김해 會峴里貝塚 층위확인조사」 『제42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전국역사학대회준비위원회), pp.419-432  
19) 釜山大學校博物館, 1998, 『金海鳳凰臺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研究叢書 第23輯.



구릉은 산지에서 연결되는 구릉으로서 A지구 패총은 서쪽사면, B지구 패총은 동쪽사면에 분포한다. A지구 패총은 해발 6~10m 정도에 분포하며 경작층, 패각층, 패각+부식토층, 패각층, 적갈색부식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층위 기울기는 20° 정도이며 경사면을 따라 퇴적되었다. B지구 패총은 A지구 패총의 구릉 반대인 구릉사면에 위치한다. 층위는 경작층, 패각층, 사질토층, 패각층, 부식토층이 자연 경사면을 따라 퇴적되어 있으며, 기울기는 15° 정도이다. 유물은 A지구는 적갈색연질토기, 경질토기, 토제품, 철기, 골각기, 동물유체, 곡물, 석기, B지구는 적갈색연질토기, 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토제품, 장신구, 골각기, 동물유체, 석기, 석검 등이 출토하였다. 그리고 패각층 아래에는 주거지, 저장공, 석관묘, 구상유구가 확인되기도 한다.<sup>20)</sup>

## 라. 釜山地域

### 1. 東萊貝塚

구릉사면에 위치하는 이 패총은 1993년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조사하였으며, 부식토+점토층, 혼토패층, 패각층이 지형을 따라 퇴적되어 있으며, 기울기는 대략 20°이다. 유물은 연질토기, 와질토기, 도질토기, 토제품, 철기, 골각기, 동물유체 등이 출토하였다. 패각층 아래에서는 성격을 알 수 없는 수혈유구가 확인되었으며, 패총보다 위쪽에서 야철지와 옹관묘도 조사되었다.<sup>21)</sup>

### 2. 樂民洞貝塚

1967~68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한 패총으로서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에서 조사한 지역의 서쪽에 위치한다. 층위는 위로부터 부식토층, 혼토패층, 회색점토층, 혼패점토층이 경사면을 따라 퇴적되어 있으며, 기울기는 대략 20° 정도이다.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 회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토제품, 철기, 골각기, 동물유체, 석기 등이 출토하였다. 그리고 혼토패층 아래에서 수혈유구와 철 생산유구가 확인되었다.<sup>22)</sup>

### 3. 朝島貝塚

동삼동패총의 동쪽에 자리잡은 조도는 해발 141m의 봉우리에 의하여 동쪽과 북쪽은 절벽으로 되어 있고, 남쪽과 서쪽은 넓은 대지로 되어 있다. 패총은 서쪽의 넓은 대지에 위치하며 1973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하여 조사되었다. 층위는 흑갈색부식토층, 패각층, 역석층으로 되

20) 沈奉謹, 1981, 『金海府院洞遺蹟』(東亞大學校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5冊

21) 釜山廣域市立博物館福泉分館, 1997, 『釜山の 三韓時代 遺蹟과 遺物 I -東萊貝塚-』, 研究叢書 第2冊

22) 國立中央博物館, 1998, 『東萊樂民洞貝塚』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28冊

어 있으며, 기울기는 대략 5~8° 정도이다.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 토제품, 철기, 골각기, 동물 유체, 무문토기, 즐문토기 등이 출토하였으며, 패각층에서 양신장으로 매납된 토광묘 1기, 혼토 패층과 역석층에서 노지 1기가 각각 확인되었다.<sup>23)</sup>

## IV. 層位考察

### 가. 貝塚層位の 範圍

패층은 사람이 주거지역에서 사용한 후 쓸모 없는 것을 버리는 장소이며 이러한 퇴적물이 일정한 장소에 쌓여 패층 층위가 형성된다. 층위는 인위적인 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층도 있지만 자연적인 요소인 바람, 강우, 침식에 의해서도 형성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패층 층위는 인위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퇴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층위 형성과정은 시간성을 고려할 때 퇴적의 시작과 종료, 그리고 후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퇴적의 시작과 종료는 인위적인 물건이 버려지는 시점부터 유적이 형성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적인 범위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후퇴적은 유적형성 완료이후부터이다.<sup>24)</sup>

패층의 층위 범위는 현재로서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물론 일부 유적의 발굴보고서에는 패층층위의 완전함을 기술하고 있지만 지형적인 입지와 광의의 취락개념에서 본다면 다소 무리가 있다. 패층의 층위 범위를 규정하기에 다소 어려운 것은 패층유적에 대한 전면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학술발굴보다 구제발굴에 치중하여 한 부분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패층 층위는 구성요인이 인위적인 및 자연적인 요소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층위 범위 설정은 상당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하여 폐기된 퇴적물의 평면 범위는 어느 정도 추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패각층의 범위, 패각+유물층의 범위, 패각+소토+목탄+재 등이 혼합된 층의 범위, 구덩이에 퇴적된 층들의 범위 등이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층위를 구성하는 요소를 포함한 각각의 층들이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범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층별로 차지하는 면적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층위 속성을 인식하고 층위는 유적의 편년수립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나. 層位の 類型分類

모든 유적은 평면 및 수직적인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유구 또한 특성에 맞게 조영-운영되

23) 韓炳三·李建茂, 1976, 『朝島貝塚』,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9冊

24) 秋淵植, 1993, 「앞글」(주 1의 나), pp.84-85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층위의 속성을 가지게 된다. 패총의 층위도 마찬가지로 유적마다 평면적인 모양새가 다르게 나타난다. 층위는 고유의 기울기와 두께를 가지고 있으며 유적마다 나타나는 층위는 다른 형태로 남아 있다. 이것은 퇴적물이 버려지는 장소의 표면과 경사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한 유적형성인의 토지이용방식 차이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 인용되는 여러 패총은 연구자마다 형성연대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삼한~삼국초기에 해당하고, 층위별로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유적형성인의 거주기간은 동일장소에서 연속성을 띠고 있으므로 층위의 평면 및 수직적인 분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층위의 평면 퇴적 분류는 지형에 따른 패총의 개수와 평면형태를 기준으로 점재 I형, 점재 II형, 단독형으로 분류하고, 수직퇴적 분류는 층위 퇴적의 기준을 옛날 지표면, 선대 유구면, 구덩이 이용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 1. 平面堆積 類型 및 意味

### 가) 點在 I型(구릉 정상부의 구릉사면에 분포하는 유형)

이 유형은 독립 및 독립형 구릉의 사면 여러 곳에 패총이 분포하고 있는 유형으로서 첫째, 독립 구릉이 주변 지역을 조망하기에 용이하고, 둘째, 구릉 정상에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주거지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주거지가 운영될 수 있는 면적과 어느 정도의 평탄대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패총이 형성된 사면과 연결되는 저지대에는 생활유적이 분포하며, 수전 등의 유적을 조성-운영할 수 있는 모래, 실트, 점토 등의 토양과 1차수에 해당하는 소하천이 형성되어 있다.<sup>25)</sup> 넷째, 독립 구릉과 연결되는 주변 구릉에는 무덤유적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sup>26)</sup> 이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적은 창원 가음정동패총, 외동 성산패총, 김해 봉황대패총, 양산 다방리패총이다. 먼저, 加音丁洞貝塚은 독립구릉(해발75m)의 해발 45-70m 구릉사면에 5개소의 패총이 점재하고 있다. 5개소 패총은 대부분 계곡지형에 분포하고, 각 지구의 패총 평면은 부정형에 가깝다. 층위는 발굴 조사된 남서쪽의 I지구 패총은 위로부터 표토층, 혼토패층, 순패각층, 암적색점토층, 흑갈색점토층이 자연경사면을 따라 퇴적되어

25) 加音丁洞貝塚과 城山貝塚, 鳳凰臺貝塚은 조건에 부합되지만, 多芳里貝塚은 다소 먼 거리에 생활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26) 해당패총 외의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패총도 주변 구릉에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몇몇 연구자는 고분군과 패총을 동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향후 정밀분석이 필요하다.

가. 崔鍾圭, 1995, 「金海期貝塚의 立地」 『三韓考古學研究』(서울 : 書景文化社), pp.83-98

나. 李賢惠, 1996, 「金海地域의 古代 聚落과 城」 『韓國古代史論叢』(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8, pp.147-195

있으며, 나머지 지구도 이와 유사한 층위가 퇴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패총을 형성한 사람들의 주거지역은 패총과 유사한 토기가 수습되는 구릉정상부가 유력하며 약간의 경사도는 있지만 평탄대지에 가깝고, 면적 또한 주거지가 충분히 조성될 수 있을 정도이다(삽도 2-a). 外洞 城山貝塚은 가음정동패총과 연결되는 구릉(해발50m)으로서 구릉사면의 3개소에 패총이 형성되어 있다. 패총 평면은 타원형이며, 범위는 평균 10-50m이내에 해당하며, 가음정동패총보다 범위가 넓은 편이다. 층위는 자연경사면을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위로부터 지표층, 패각층, 점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이 패총 역시 평탄대지에 가까운 구릉 정상부를 주거지역으로 이용한 듯하며, 패총을 조성한 주거인은 가음정동 패총인과 다른 사람일 것이다(삽도2-a). 鳳凰臺貝塚은 독립구릉(해발46m)의 남서쪽 사면 5개소에 패총이 분포하며, 남쪽에 있는 패총이 규모가 가장 넓다. 패총은 구릉 정상부의 주거지역을 의식한 듯 어느 정도 기울기가 있는 사면에 형성되어 있으며, 혼토패총, 패각층, 갈색토층, 부식토층이 자연경사면을 따라 퇴적되어 있다. 구릉 정상부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6세기에 해당하는 구, 주거지, 주혈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패총은 기원후 3-6세기에 걸쳐 형성된 것이지만 중심연대는 3세기이라 한다. 그리고 패총을 형성한 주거인은 구릉 정상부와 이와 연결한 주변지역일 가능성이 높다<sup>27)</sup>(삽도 2-b). 多芳里貝塚은 양산일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해발 120m의 구릉정상부에 위치한다. 패총은 모두 3개소가 분포하고 있는데, 1개소는 방어호 내부에 있으며, 2개소는 방어호 바깥의 양쪽 사면에 분포하고 있다.<sup>28)</sup> 패총 층위는 혼토패총, 흑색점토층, 갈색점토층이 퇴적되어 있으며, 평면은 방어호 내부에 있는 패총은 알 수 없지만 구릉사면에 있는 2개소 패총은 부정형이다. 그리고 층위는 자연경사면을 따라 퇴적되어 있다. 패총을 형성한 사람은 다른 유적과 마찬가지로 방어호 내부에 수혈유구, 주혈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호 내부의 평탄대지에 거주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방어호와 패총의 관계는 층위에서 보면 방어호가 패총보다 이른 시기이지만 시간적인 공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삽도3-a).

그밖에 이 유형과 유사한 지형입지를 갖고 있는 유적은 창원 내동패총, 진해 웅천패총, 고성 패총으로서 현재는 구릉사면의 1개소에 패총이 형성되어 있지만, 여러 곳에 패총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27) 서영남은 봉황대패총의 형성원인을 특정유물과 복합한 유구에 의하여 파악하고 있지만 유적의 지형입지와 자연환경, 유물의 수량분석과 생계유형,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요소도 고려하여 유적의 성격과 패총의 형성원인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徐始男, 1998, 「V. 봉황대 유적의 성격」 『金海鳳凰臺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研究叢書 第23輯, 164-171

28) 보고서에 언급한 패총 이외에 동쪽 산지로 연결되는 평탄대지의 남쪽과 북쪽사면에 각 1개소의 패총이 분포하고 있음을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수습유물은 발굴조사에서 출토한 것과 유사하며, 사슴 및 멧돼지 뼈와 참굴, 백합, 주름다슬기 등의 동물유체도 수습하였다.

#### 나) 點在 II型(구릉사면에 분포하는 유형)

이 유형은 패총의 분포지역은 점재 I 형과 유사하지만 지형입지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높은 산지에서 연결되는 구릉사면에 패총이 점재·분포하며, 둘째, 바닷가와 연결되는 곡저상부에 위치함과 동시에 타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로에 위치하는 점이다. 셋째, 패총 앞쪽에는小河川과 생산활동이 가능한 지형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유적은 마산현동 패총으로서 동일 구릉사면에 4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III·IV지구 패총이 분포하고 있다. 현동III지구 패총은 해발 56m에 분포하며, 약간 높은 곳에서 무문토기시대 주거지와 가야초기의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다. 패총의 평면은 후대 삭평에 의하여 알 수 없으며, 혼토패총, 갈색점토층, 흑갈색점토층이 경사면을 따라 퇴적되어 있다. 현동IV지구 패총은 III지구 패총의 서쪽 40m 거리에 위치하며 패총과 폐기장 유구가 확인되었다. 패총은 폐기장과 같은 구덩이에 퇴적되어 있으며 평면은 도로개설로 인하여 알 수 없다. 층위는 구덩이의 반복 굴착과 재퇴적으로 인하여 복잡하지만 대체로 점토층, 패각층, 혼토패총, 점토층으로 퇴적되어 있다.<sup>29)</sup>(삽도3-b) 현동패총은 출토유물을 볼 때 원삼국 및 가야초기에 형성된 것으로서 현동 II·III지구에서 확인되는 가야시대 주거지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주변에 패총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고분군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일지역에서 주거-사후-폐기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유적으로서 주거지역 주변에 생산부산물을 버리는 폐기장소와 주거인이 매장된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거인이 생활부산물을 버릴 때 자연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과 구덩이를 굴착하여 버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單獨型

이 유형은 패총이 한 장소에서 확인되는 것으로서 패총의 평면 차이는 지형에 따라 단독 I형, 단독 II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sup>30)</sup> 단독 I형은 독립구릉의 구릉사면에 패총이 1개소가 확인되는 유형이며, 단독 II형은 높은 산지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릉사면에 패총이 1개소 분포하고 있는 유형이다. 단독 I형의 대표적인 유적은 창원 남산패총, 사화패총이며, 단독 II형은 진해 용원패총, 김해 부원동 A·C지구패총, 동래(낙민동)패총, 조도패총이다. 유형별로 대표적인 유적을 살펴보면 먼저, 단독 I형은 창원 남산패총이 대표적이다. 이 패총은 주위를 조망하기에 용이한 해발 100m의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며, 남동쪽 사면에 패총이 형성되어 있다.

29) 가. 兪炳一, 1992, 「앞글」(주 10), pp.728-731

나. 李盛周·金亨坤, 1989, 『앞책』(주 11)

30) 패총이 입지하는 지형여건이 서로 다르며, 평면적으로 나타나는 패총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분류하였다.

패총의 면적은 18×12㎡이며, 평면은 원형에 가깝다. 패총은 약간의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환구 상부와 폐기장의 내부에 퇴적되어 있다. 이 점은 패총의 형성연대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대체로 폐기장에 형성된 패총보다 환구 상부에 퇴적된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 퇴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패총은 구릉사면의 자연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굴착된 환구 일부와 폐기장 구덩이를 그대로 이용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폐기장 구덩이도 중복관계가 심하고, 유기물질만이 퇴적된 구덩이도 있다.<sup>31)</sup> 패총은 환구 내부의 구릉 정상부에 있는 주거지인이 생활부산물을 버려 형성된 것이지만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중복관계가 심한 관계로 어떠한 평면 형태의 주거인이 패총을 형성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삽도4-a) 단독Ⅱ형의 대표적인 유적은 진해 용원패총이다.(삽도4-b) 이 패총은 해안에 있는 해발 34m 정도의 구릉 평탄대지에 주거지가 있고, 남쪽사면에 패총이 형성되어 있다. 패총은 남북방향의 타원형으로서, 면적은 30×15m 정도이다. 층위는 혼토패총, 점토층, 소토층이 자연경사면을 따라 퇴적되었으며, 구지표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다. 패총은 정상부의 평탄대지에 있는 주거인이 폐기한 것인데,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중복관계에서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으로 패총을 폐기한 주거인이 달랐는지, 아니면 보고자의 의견처럼 평면이 혼재된 동시대의 주거지인지는 알 수 없다.<sup>32)</sup>

## 2. 垂直堆積 類型 및 意味

### 가) 舊 地表面을 이용한 유형

이 유형은 취락 주변에 어느 정도 기울기가 있는 옛날 지표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퇴적을 폐기한 경우이다. 해당유적은 가음정동 패총,<sup>33)</sup> 현동Ⅲ지구 패총, 조도패총, 고성패총, 외동성산 동구패총, 진해 용원패총, 창원 남산패총 일부 등이다. 패총의 층위는 자연경사면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구 지표면의 기울기와 비례한다. 층위 두께는 위쪽보다 아래쪽이 두꺼우며 퇴적층위도 단순한 편이다. 이 유형의 최하층은 당시 지표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층이 확인되는데, 조도패총은 해안의 역석층이 지표면이지만(삽도5-a), 다른 패총의 경우는 대부분 흑색을 띠는 점토층 및 부식토층이다. 설령 흑색토 아래에 가음정동패총, 현동Ⅲ지구 패총과 같이 선

31) 가. 昌原大學校博物館, 1998, 『昌原의 先史·古代 聚落』(창원대학교박물관 圖錄 1998)

나. 李盛周, 1998, 『韓國의 環濠聚落』 『환호취락과 농경사회의 형성』(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 제3회 합동고고학회 발표문)

32) 沈奉謹·李東注, 1996, 『앞책』(주 12), pp.312-317

33) 이 패총은 패각층 아래에 환구가 굴착되어 있는데, 先代의 環溝가 매몰된 후 패각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형에 포함할 수 있다.

대 유구가 조성되어 있더라도 이 유구가 매몰된 후 후대의 패총관련 층위가 형성되기 때문에 흑색토는 당시의 지표면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 유형의 퇴적물은 패총보다 높은 곳에 있는 주거지에서 버려져 퇴적되므로 층위 기울기는 완만하고, 두께는 아래쪽일수록 두껍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나) 先代遺構 上面에 퇴적된 유형

이 유형은 패총 퇴적물이 선대 유구 상부에 퇴적된 경우로서, 패총의 최하층인 흑색토 아래에서 선대 유구가 확인되는 경우는 이 유형과 성격이 다르다.<sup>34)</sup> 대표적인 유적은 김해 봉황대 패총, 부원동A지구 패총, 양산 다방리 환구상부 패각층 등이다. 김해 부원동A지구 패총은 IV층 패각층과 관련이 있는 주거지 상부에 II층의 패각층이 퇴적되어 있고,<sup>35)</sup> 봉황대패총 1트렌치에서는 선대 주거지내부에 패각층이 매몰된 경우로서 수직퇴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삽도5-b) 그리고 이 주거지는 먼저 퇴적되어 있는 갈색 혼토패총을 굴착한 후 조성된 것으로서 주거지를 경계로 퇴적물의 선후관계를 알 수 있는 것도 상대편년에 유용한 자료일 것이다.<sup>36)</sup> 이 유형의 특징은 선대 유구 내부에 퇴적된 퇴적물의 층위는 어느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상부는 기울기가 완만한 편이다. 퇴적물의 구성은 김해 봉황대 패총은 상당히 두껍고, 퇴적물 또한 토기, 골각기, 동물유체, 주거지 폐기 부산물 등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조성-운영된 주거지와 관련된 폐기일 것으로 보여진다.<sup>37)</sup> 그리고 김해 부원동패총과 양산 다방리패총은 퇴적물 구성과 두께, 층위 흐름 등에 관한 것은 동시대의 패총과 유사하다.

34) 왜냐하면 선대 유구 내부는 이미 토양이 매워진 후 패총 퇴적물이 쌓였기 때문에 패총 형성 시점과 시간적인 공백이 있으며, 성격 또한 서로 다르다.

35) 주거지 설명에서는 패각층을 굴착하고 조성된 것으로 기술한 듯하고, 고찰에서는 패각층의 최하층을 굴착하고 조성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주거지 상부에 패총의 퇴적물이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A지구 II·III층이 IV층과 동시대인 주거지 상부에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퇴적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沈奉謹, 1981, 『金海府院洞遺蹟』, pp.72-83, pp.224-228

36) 釜山大學校博物館, 1998, 『앞책』(주 19), pp.15-17

37) 패총은 광의개념에서 취락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적이므로 최근의 패총조사에서 패총과 함께 집터, 무덤, 폐기 구덩이기 동시에 발견된다. 그러나 이것은 패총과 연관된 하나의 독립 유구이거나 시기가 다른 유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층위에서도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패총 자체를 재사용한 개념보다는 취락을 구성하는 하나의 복합유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복합유적은 동일지역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가. 金建洙, 1999, 『韓國 原始·古代의 漁撈文化』(서울 : 學研文化社), pp.61-63

나. 李相吉, 2000, 「廢棄에 관한 考古學的 檢討」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20周年 紀念論叢』 慶北大學校 人文大學 考古人類學科, pp.73-74

다) 구덩이를 이용한 경우

이 유형은 주거지역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을 버리기 위하여 주거지역 주변의 구릉사면에 구덩이를 굴착한 후 폐기물을 버려 형성된 것으로서 퇴적물의 수직양상은 구덩이의 깊이와 모양새에 좌우된다. 구덩이 평면은 대체로 길다란 타원형이며, 층위는 넓은 U자형으로 퇴적되어 있다. 퇴적물 구성은 인위적인 폐기물과 점토, 모래 등이 혼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퇴적물은 중복된 구덩이의 선후관계 파악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된다. 대표적인 유적은 마산 현동 IV지구 패총, 창원 남산패총, 사화패총, 내동패총으로서 마산과 창원지역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먼저, 현동IV지구 패총은 구릉사면에 8개 이상의 구덩이를 굴착하였는데, 동시에 구덩이를 굴착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순서적으로 굴착하여 폐기구덩이로 이용하였다. 구덩이는 원형 및 타원형으로서 크기는 구덩이별로 다르며, 퇴적물은 패각, 토기, 점토 및 모래, 유기물질, 목탄 등으로서 구덩이의 모양새에 따라 넓은 U자 모양으로 퇴적되어 있다.(삽도5-c) 다음은 내동패총으로서 비록 단애부만 조사하였지만 넓은 V자 모양으로 2개 이상 구덩이를 굴착한 후 퇴적물이 퇴적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 구덩이에는 점토와 패각, 목탄, 인공유물 등이 구덩이의 모양새에 따라 퇴적되어 있다.(삽도5-b) 구덩이의 평면은 알 수 없지만 크기에서는 현동IV지구 패총, 남산패총, 사화패총보다 월등히 크다.<sup>38)</sup> 그리고 구덩이의 중복관계와 성격은 현재로서는 폐기장 구덩이로 판단하지만 향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창원 남산패총으로서 독립구릉의 구릉사면에 구덩이를 굴착한 후 폐기장으로 활용하였다. 구덩이는 길다란 타원형으로서 현동IV지구 패총처럼 동시에 구덩이를 굴착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구덩이를 굴착하여 사용하였다. 구덩이 바닥에는 순패각층과 목탄, 토기, 철기 등의 인공유물, 불탄 흙, 재, 동물유체, 골각기 등이 퇴적되어 있어 폐기장으로 구덩이를 굴착한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유기물질만이 퇴적되어 있는 구덩이도 있는데, 이 역시 생산 부산물을 폐기한 구덩이이다.<sup>39)</sup> 한편 이 유형의 구덩이는 굴착된 모습과 평면이 대체로 조잡할 정도로 불규칙적이다. 그리고 구덩이가 확인된 곳은 환구 외부이거나 근처에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흙을 굴착한 구덩이 생토층은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흙은 주거지의 조성-운영 등에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 유형의 구덩이는 단순히 폐기장 역할의 구덩이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용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구덩이를 굴착하여 토사를 주거지 조성-운영에 활용한 후 생겨난 구덩이를 주거인이 생활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을

38) 俞炳一, 2000, 『앞글』(주 7-나), pp.204-205

39) 昌原大學校博物館, 1998, 『앞책』(주 8-나), pp.22-23



폐기하는 구덩이로 다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sup>40)</sup>

## 다. 層位形成 要因

패총 층위는 주거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부산물 등을 버려서 형성된 것이며, 층위 형성은 장소, 방법, 속도와 횡수에 따라 층위 형성이 다를 수 있다. 층위 양상 등이 다르다는 것은 단편적인 사례이지만 당시 사회의 폐기에 대한 인식과 관념차이, 기후 및 환경에 대한 적응 및 토지이용방식 등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 1. 廢棄場所

폐기장소는 층위형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서 이 장소는 넓은 의미의 취락에서는 취락 전체의 공간분석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주거지와 패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취락은 하나의 공동체사회이므로 사회 안정과 유지를 위하여는 여러 성격의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이러한 여건에서 폐기장소가 설정될 수 있다. 폐기장은 기본적으로 생활에서 발생하는 쓸모 없는 부산물을 버리는 장소이므로 보건·위생, 병충해, 전염병, 오염, 냄새 등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장소를 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바꾸어 말하면 취락인의 안전을 고려한 특별한 장소에 폐기장을 선정할지도 모르겠다.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패총과 함께 주거지가 발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지표에서 패총만 확인된다 하더라도 지형입지 차원에서 주거지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시대의 폐기장소는 구릉 정상부에 주거지가 확인되는 유적과 구릉사면에 주거지가 확인되는 유적 모두 지형이 계곡모양이거나 토지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한 급경사면을 폐기장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장소 선정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창원 가음정동패총, 외동 성산패총, 창원 남산패총, 김해 봉황대패총, 진해 용원패총, 웅천패총, 양산 다방리패총 등을 보면 모두 경사가 급하거나 계곡모양의 장소에 패총이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장소 선택은 주거인의 위생과 질

40) 이러한 구덩이를 제사의례와 관련된 수혈유구로 상정하는 논문이 발표되어 주목된다. 그러나 고분군과 관련된 수혈유구는 무덤과 관련된 의례 유구와 밀접한 것은 필자도 주목하고 있지만, 취락 및 패총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유적에서 확인되는 구덩이는 매우 불규칙하게 조성되었고, 중복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유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구덩이에서 의례와 관련되었을 유물이 출토하지만, 구덩이 자체에서 의례행위를 한 것보다는 다른 장소에서 의례행위를 마친 후 의도적으로 구덩이에 버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두철, 2000, 「앞글」 (주 14), pp.43-68

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리라 판단된다. 패총은 대부분 주거지역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므로 폐기방법 역시 높은 지대의 주거지역에서 낮은 폐기장으로 버렸을 것이다. 때문에 퇴적 층위도 버리는 장소에서 멀수록 두껍게 나타나고, 퇴적물 구성도 거칠고, 교란도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패총은 어느 정도의 주거지 규모에서 발생된 것일까? 이 점을 알 수 있는 유적이 창원 남산유적과 진해 용원유적이며, 추정 가능한 유적이 김해 봉황대유적, 창원 가음정동패총·성산패총이다. 창원 남산유적은 구릉 정상부에 원형 및 타원형의 수혈주거지 35기와 저장혈의 타원형 수혈, 환구가 있고, 구릉사면의 남쪽에는 유물포함층, 동쪽에는 구덩이와 패총이 형성된 복합유적이다. 이 유적은 구릉 정상부 전체를 조사하였으며 조사에서 나타난 주거지 35기, 저장혈 10여기, 유물포함층, 패총, 구덩이로 구성된 규모 정도가 하나의 단위취락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단위취락 규모에서 형성된 남산유적의 폐기장은 유물포함층,<sup>41)</sup> 구덩이, 패총으로 볼 수 있고, 개별 폐기장 크기는 패총은 18m×12m, 구덩이는 길다란 타원형으로서 5m이내, 남쪽 구릉사면에 있는 유물포함층은 패총보다 면적이 넓다. 그리고 남산유적의 폐기장소는 주거지, 환구, 패총, 구덩이가 축조순서로 볼 때 약간의 시간성은 있지만 폐기의 장소와 방법은 폐기물의 구성에 따라 버리는 장소가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삽도6-a). 다음은 용원유적으로서 남산유적처럼 단위취락 설정이 가능하다. 이 유적은 구릉의 평탄대지는 주거지 21동, 건물지 4동, 사면에는 6호, 10호, 46호 등의 수혈유구<sup>42)</sup>, 규모가 30m×15m 정도인 패총 1개소가 형성되어 있다. 이 유적은 남산유적과는 단위취락을 이루는 구성요소에서 유사하지만 패총의 크기와 주거지와와의 거리는 용원유적이 넓고, 크다.(삽도6-b) 패총의 규모는 일차적으로 주거인의 인구수와 운영기간과 관련이 있지만,<sup>43)</sup> 상기 유적들은 출토유물로 보아 약 1세기 동안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기간은 상한과 하한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인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 그밖에 봉황대패총, 성산패총, 가음정동패총도 지형입지와 패총의 점재 양상으로서 단위취락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 유적은 패총이 구릉사면에 점재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패총의 형성과정이 점재형과 단독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출토유물로 보아 패총별로 시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점재된 패총이 동시기의 동일 주거인이 형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1) 남쪽사면에 있는 유물포함층은 점성이 강하고, 토기 등이 출토하였다. 토기 등의 출토유물이 패총과 주거지에서 출토한 것과 동시기이므로 주거인이 고의적으로 폐기물을 버려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2) 보고자는 토사를 채취한 후 폐기장으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남산유적의 구덩이와 용도가 비슷한데, 유구의 위치가 패총보다 높으면서 가깝고, 내부에 패각, 동물유체, 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출토유물과 관련 있는 작업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일 가능성은 없을까.

43) 鈴木公雄, 1989, 『貝塚の考古學』(日本: 東京大學出版會), pp.39-54

## 2. 基本 層位の 性格

패층에 퇴적된 퇴적물은 기본적으로 생활부산물을 버려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 길의 지적처럼 단순폐기도 있지만 어떠한 목적에 의하여 퇴적물이 발생할 수도 있다.<sup>44)</sup> 층위는 다양한 구성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패층에서 확인되는 층위는 패분층, 혼토패층, 패각층, 점토층 등이다. 이 층위는 폐기행위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생활의 부산물을 버려서 퇴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성물과 색조가 다른 층위를 주거지에서의 생활방식의 변화까지 추적하기에 이 글에서는 어렵다. 물론 구성물이 다르고 층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구성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글에 인용하는 유적의 대부분이 층위에 대한 토양분석과 퇴적분석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별 층에 대한 구성물 성격과 기본적인 폐기행위에 대하여만 살펴보고자 한다.

### 가) 貝粉層

이 층은 조가비가 가루처럼 으깨어져 있는 층을 말하며, 창원 가음정동 패층에서 유일하게 확인된다. 이 층은 검은 부식토와 혼재되어 있으며, 위는 지표층, 아래는 순패각층과 점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이 층에 포함되어 있는 조가비는 완전한 모양을 가지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으스러진 형태이며, 완전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혼토패층과 패각층의 작은 조가비와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층은 층내에서의 교란은 있을 수 있지만 후대의 교란에 의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다3, 다4 피트에서 교란되지 않은 순패각층과 IV층 흑갈색점토층 상부에 상당히 두껍게 퇴적되어 있기 때문이다.<sup>45)</sup> 따라서 이 층은 후대의 교란으로 규정하여 의미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로 형성된 하나의 문화층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며, 형성요인은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층위의 퇴적속도는 현재로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고, 평면면적과 최대 160cm 정도의 두께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삽도7-a)

### 나) 混土貝層

이 층은 조가비, 유물, 유기물질, 토양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층이며, 순패각층과는 조가비

44) 李相吉, 2000, 『앞글』(주 37-나), pp.73-76

45) 가음정동패층은 필자가 창원문화재연구소에 근무할 때 발굴한 유적이며, 발굴조사과정에서 패분층에서 못과 비닐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후대의 경작과 파괴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일부 피트에서 교란되지 않은 패각층과 구지표에 패분층이 연결되고, 층위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이 층 전체를 후대의 교란으로 볼 수 어렵다.

李柱憲, 兪炳一, 金良美, 1994, 『앞책』(주 5), pp.144-146

와 토양의 수량적이 차이에서 구분되는 층위이다. 이 층은 대부분의 패층에서 확인되는 가장 기본적인 층으로서 다른 층과는 달리 유물, 동물유체, 유기물질 등이 가장 많이 출토하고 패층의 중심연대를 결정하는 유익한 층이기도 하다. 이 층의 상부는 대부분 지표인 부식토층이 존재하고, 아래는 점토층이 쌓여 있다. 그리고 패각층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가비의 수량, 토양의 多·小에 의하여 구분된다. 이 층의 형성과정은 일차적으로 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틀림없다. 구성물의 대부분이 사람의 생활과 연관된 것이며, 동물유체 또한 소비활동이 완료된 후 버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혹 이 층에서 인위적인 행위보다 자연적인 유입에 의하여 형성된 것도 있는데, 쥐, 파충류 뼈, 육지달팽이, 微小貝類, 미세한 토양 등이다. 그리고 이 층의 대표적인 함유물은 조가비로서 층위에서 나타나는 종이 지점마다 모여서 퇴적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거인이 特定種의 조가비를 소비 처리한 후 폐기한 행위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창원 남산패층과 진해 용원패층 등에서 홍합과 대수리, 두드럭고둥, 눈알고둥, 비뚤이고둥 등이 일정한 지점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이러한 작업행위의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魚骨 등도 무작위로 출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별 출토하는 것도 같은 행위의 결과일 것이다. 한편 이 층의 퇴적속도는 순패층보다 대체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층에서 자연적으로 유입한 쥐, 육지달팽이, 파충류 뼈 등이 패각층보다 수량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이다.

#### 다) 純貝層

이 층은 순수 조가비로 이루어진 층을 말한다. 대표적인 종은 참굴로서 이 글에서 다루는 패층과 시기가 다른 패층에서도 이 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다. 이 층은 조가비의 함유량에 따라 혼토패층과 구분되지만 모든 패층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sup>46)</sup> 이 층에 함유된 유물과 다른 구성물은 가음정동패층과 남산패층을 볼 때 혼토패층보다 빈약한 편이며, 자연적으로 유입된 것들도 혼토패층보다 적다. 이 층의 상부는 혼토패층처럼 보이는 부분도 확인되는데 이러한 점은 혼토패층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패각의 공극으로 유물 등이 유입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폐기속도는 혼토패층보다 시간적으로 짧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 층에서 토기, 골각기, 동물유체 등도 출토하지만 수량적으로 적고, 주종을 이루는 것이 조가비인데, 이러한 조가비는 주거인이 빈번한 조가비 채취활동으로 확보된 조가비의 속살을 꺼낸 후, 껍질을 바로 폐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46) 이러한 이유는 정확한 수량분석과 퇴적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시각적 차이에 의하여 구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혼토패층과 패각층이 동시에 확인되는 유적의 경우는 양자간의 상대적인 구분에 의하여 구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라) 燒土層

이 층은 불에 타거나 그을린 흙이 모여 형성된 층으로 다른 층과 색조에서 눈에 띄게 차이가 있다. 이 층은 진해 용원패총과 창원 남산패총에서는 상당히 두껍게 확인되지만 다른 패총에서는 두께와 면적이 적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용원패총은 생토층으로 추정되는 층의 상부에 길이 550cm 정도로 비스듬히 퇴적되어 있고, 불 먹은 것으로 보이는 청색의 홍합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삼도7-b) 남산패총도 청색을 띠는 홍합 등이 으깨어진 모습으로 소토층과 함께 퇴적을 이루고 있다. 소토와 청색을 띠는 홍합 등이 모여서 소토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의 층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홍합 조리법은 불에 달구어진 흙 위에 홍합을 조리하였는지,<sup>47)</sup> 아니면 소토와 홍합은 별도의 성질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sup>48)</sup>

### 마) 粘土層

점토층은 패총에서 적갈색과 흑갈색으로 대부분 확인되는데, 공간적으로는 패각층과 혼토패층의 아래에서 대부분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두 층이 연속적으로 경계를 이루어 상·하로 퇴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흑갈색 점토층이 패각층 및 혼토패층 아래에서 나타난다면 이 흙이 패각을 버리는 최초의 지면, 즉 舊地表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적갈색 점토층은 현재로서 성격이 애매하다. 창원 가음정동 패총의 경우에도 구지표로 보이는 흑갈색점토층의 상부에 이 토층이 존재하는데, 두께는 20cm 이내이지만 토기편과 동물유체 등이 적지 않은 수량으로 출토한다. 따라서 독립된 층으로 볼 수 있지만 유물이 출토되는 것과 패각층 아래에서 적갈색을 띠는 이유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 라. 貝塚 規模의 地域別 比較

패총은 해안에 위치하거나 바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삼림환경이 잘 발달되어 있다. 패총의 구성물 또한 주변 환경을 대변해 주는 바다 및 삼림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 인공유물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 패총 규모는 스즈끼선생이 분석한 것처럼 면적

47) 이동주는 소토를 패류의 조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소토를 이용한 구체적인 홍합법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향후 자료가 축적되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李東注, 1996, 「3. 考察」 『鎮海龍院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24冊, p.429

48) 요즘에 해안에서 홍합 등을 채취하여 버너와 코헤르를 이용하여 삶은 후 속살을 먹고 버려진 홍합 껍질을 보면 삶기 전의 모습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종종 경험한다. 물론 버려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소토에서 출토하는 것과 같이 청색을 띠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홍합에 열을 가하여 조리한 후, 시간이 흘러 색깔이 변조되고, 껍질이 으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홍합은 토기에 담아 열을 가하여 조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홍합과 함께 퇴적된 소토는 다른행위의 결과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다는 체적을 등고선측량법, 각주법, 평균 두께법으로 구하여 비교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진다.<sup>49)</sup> 패총의 규모는 일차적으로 패총을 형성한 사람들의 거주기간과 인구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앞에서 분류한 점재형과 단독형 패총을 형성한 취락의 규모와 거주기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패총조사는 효율적인 층위발굴 방법 모색과 편년연구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통한 취락인의 운영기간과 인구수 분석, 폐기장소 및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는 패총 규모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패총의 분포양상이 어느 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그려보고자 하며, 그 대상으로 창원분지와 김해지역을 비교하도록 하겠다.

昌原地域은 분지 가운데에 있는 구릉일대에 패총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패총 근처는 충적 저지대와 소류지, 큰 하천이 흐르고 있고, 패총 주변 지세는 삼립환경이 잘 발달되어 있다. 창원분지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패총은 무문토기시대 1개소<sup>50)</sup>. 이 글과 관련 있는 원삼국·가야시대 패총은 12개소이다.<sup>51)</sup> 패총의 입지는 대부분 독립구릉의 사면에 위치하며, 유적간의 거리는 소지역을 중심으로 점재하고 있는 패턴이다. 패총의 분포경향은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여러 사면에 흩어져 있는 점재형과 사면에 1개소에 분포하는 단독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패총의 분포경향을 통한 패총의 규모와 조성기간으로서 점재형이 단독형보다 패총의 규모와 형성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점재형의 대표적인 유적은 가음정동패총, 외동 성산패총으로서 독립 구릉 사면에 가음정동패총은 5개소, 성산패총은 3개소에 패총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패총의 개수가 성산패총의 경우를 볼 때 동시기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동구-서남구-북구 순으로 시간성을 갖고 패총이 형성되었다고 한다.<sup>52)</sup> 그러나 성산패총의 시간성은 패총의 형성시기를 말하는 것이며, 지구별 패총의 중심연대가 원삼국·가야시대이므로 성산패총은 동시기에 구릉 정상부에 거주하면서 여러 장소에 패총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음정동패총도 성산패총처럼 구릉정상부의 여러 사면에 패총이 분포하고 있는데, 발굴된 I지구 패총을 보면 역시 성산패총과 유사한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가음정동패총의 인접구릉에는 성산패총에서 보이지 않은 고분군이 자리잡고 있는데, 일부 지역의 조사결과를 볼 때 고분군의 출현시기가 가음정동 I지구 패총보다 다소 늦은 단계이지만<sup>53)</sup>, 전체적으로 본다면 고분군과 패총이 동일 주거인에 의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9) 鈴木公雄, 1989, 『앞책』(주 43), pp.42-54

50) 창원 남산 환호취락의 환호 외부에 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백합, 피조개, 참굴, 눈알고둥, 피빨고둥과 멧돼지의 동물유체 등이 확인되었다.

창원대학교박물관, 1998, 『앞책』(주 8-나), p.18

51) 原三國·伽耶時代の 昌原 南山貝塚을 포함하면 12개소가 된다.

昌原大學校博物館, 1995, 『앞책』(주 9-나), p.5

52)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6, 『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調査報告』

단독형은 창원 남산패총, 사화패총, 내동패총 등으로서 남산패총의 경우, 구릉 정상부의 단위 취락에 한 개소에 패총이 형성되어 있으며, 내동패총도 남산패총과 유사한 구조일 것이다. 내동패총은 삼동동용관묘가 인접에 위치하고 있지만 남산패총의 경우는 고분군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창원지역에서의 패총의 규모와 형성기간은 점재형에 속하는 가음정동패총과 성산패총이 단독형보다 규모가 크고, 형성기간이 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적자체가 복합유적이라는 점, 유적 서쪽에 마산만으로 나갈 수 있는 남천의 존재, 유적 주변에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저지대의 면적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 등이 유적의 형성규모와 운영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음정동패총과 성산패총은 말안장상의 지형으로 연결되는 유적으로서 가음정동-외동성산 유적군으로 묶을 수 있고, 이러한 점재형의 양자 유적이 원삼국·가야시대의 창원지역을 대표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다음은 金海地域으로서 패총은 현재까지 15개소에서 확인되고 있다.<sup>54)</sup> 패총은 독립 구릉사면과 산지에서 연결되는 구릉사면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 김해지역에서 이 시기를 대표하는 패총은 봉황대와 부원동패총이다. 봉황대패총은 구릉을 중심으로 동-서-남쪽에 점재하여 분포하며 형성시기는 대략 기원후 2-6세기에 해당된다. 그 가운데에 남쪽사면에 있는 패총은 중심연대가 3세기로서 너비 80m 이상, 길이 270m 이상의 면적에 분포하고 있으며, 구릉 정상부와 평탄대지, 그리고 동쪽 사면에는 주거지, 구상유구 등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패총과 연관이 있는 주거지는 구릉 중심부가 아니고 구릉의 서쪽사면에 밀집분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의 점재형 패총유적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sup>55)</sup> 부원동패총은 봉황대유적의 동쪽에 있는 산지와 연결되는 구릉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패총은 구릉을 중심으로 반대편에 각각 1개소에 패총이 형성되어 있는데 단독형이지만 패총 형성인은 서로 다르고, 봉황대패총과도 다르다. 하지만 고김해만과 삼림환경은 함께 활용하였을 것이다. 복합유적인 봉황대유적은 금관가야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금관가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최근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재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sup>56)</sup> 그러나 봉황대유

53) 李柱憲·金大成, 1994, 「昌原 加音丁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 『昌原加音丁洞遺蹟』昌原文化財研究所 學術調査報告 第2輯, pp.1-133

54) 가. 郭鍾喆, 1991, 「洛東江河口域에 있어서 先史·古代의 漁撈活動」 『伽耶研究』 3, (부산 : 伽耶文化研究院), pp.137-229

나. 沈奉謹·李東注, 1993, 『金官伽倻圈遺蹟精密地表面調査報告』 창원문화재연구소·동아대학교박물관

55) 봉황대유적처럼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의 약간 아래에 분포하고, 패총은 구릉사면에 위치하는 유적은 창원 남산유적, 진해 용원유적, 고성 동외동유적으로서 구릉 정상부에는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상부에 있었던 주거지가 후대의 훼손으로 소실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 취락의 광장으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崔鍾圭, 1990, 「廣場에 對한 認識」 『歷史教育論文集』 13·14, (서울 : 歷史教育學會)

적 자체를 금관가야의 중심지였다는 것보다는 봉황대와 대성동 일대가 금관가야의 중심부에 포함된다는 인식으로 정리하고, 향후 금관가야의 중심부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봉황대패총은 유적의 규모와 역사성을 고려할 때 김해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유적임에 틀림없고, 입지와 주변 지세 등도 주변 및 古金海灣의 곳곳에 위치하는 패총과는 뚜렷이 차별되는 소위, 위계화가 보여진다. 그러나 김해 봉황대 패총과 창원 가음정동-외동성산패총군 그리고 타 지역의 패총과의 위계화는 현재로서 어렵다. 역사성과 구분군 차원에서는 김해, 창원, 타지역간에 있어 위계화가 가능하지만 패총 자체로서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리고 패총의 형성-운영-소멸에 관한 편년도 현재로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며, 또한 패총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미진한 때문이기도 하다.

## V. 結 言

이상으로 패총의 층위형성에 대하여 층위의 범위, 층위의 유형분류, 형성요인, 층위 규모 비교 등을 주제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당시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문화상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유적이 패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패총에 대한 관심도 층위학적인 편년에 치중한 연구 분위기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 글이 패총에 대한 부족한 관심을 만족스럽고 충분하게 다루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위안이 되는 것은 패총유적의 성격과 출토유물 등이 당시 사람들의 전반적인 문화상을 알 수 있는 고고학자료임에 틀림없고, 나아가 이러한 자료를 학제간의 교류와 고고학을 하는 우리들이 직접 동물유체와 자연유물을 분류·동정·분석하고 그 결과로서 당시의 생활문화를 복원하는 그 자체에 상당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활고고학의 정수를 맞볼 수 있는 유적이 바로 패총이기 때문이다.

56) 徐始男, 1998, 「앞글」(주 27), pp.170-171



<참고문헌>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1, 「金海 鳳凰臺 周邊 消防道路 開設區間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資料」 現場說明會 資料 2
- 慶北大學校博物館, 1990, 『原三國時代 文物展』慶北大學校 開校44週年 記念圖錄
- 郭鍾喆, 1991, 「洛東江河口域에 있어서 先史·古代의 漁撈活動」『伽耶研究』3, (부산 : 伽耶文化研究院)
- 國立中央博物館, 1998, 『東萊樂民洞貝塚』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28冊
- 金建洙, 1999, 『韓國 原始·古代의 漁撈文化』(서울 : 學研文化社)
- 김두철, 2000, 「祭祀考古學의 研究成果와 課題」『고고학의 새로운 지향』 부산북천박물관 제4회 학술발표회
- 金廷鶴, 1967, 「熊川貝塚研究」『亞細亞研究』10-4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 金鍾徹 外, 1992, 『固城貝塚』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4책
-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6, 『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調査報告』
- 배진성, 1999, 「김해 會峴里貝塚 층위확인조사」『제42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 釜山廣域市立博物館福泉分館, 1997, 『釜山の 三韓時代 遺蹟과 遺物 -東萊貝塚-』研究叢書 製2冊
- 釜山大學校博物館, 1998, 『金海鳳凰臺遺蹟』釜山大學校博物館 研究叢書 第23輯
- 徐始男, 1998, 「V. 鳳凰臺 遺蹟의 性格」『金海鳳凰臺遺蹟』釜山大學校博物館 研究叢書 第23輯
- 신숙정, 1994, 『우리나라 남해안지방의 신석기문화 연구』(서울 : 學研文化社)
- 沈奉謹, 1981, 『金海府院洞遺蹟』東亞大學校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5冊
- 沈奉謹·李東注, 1993, 『金官伽倻圈遺蹟精密地表面調査報告』昌原文化財研究所·東亞大學校博物館
- 沈奉謹·李東注, 1996, 『鎭海龍院遺蹟』東亞大學校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24冊
- 양승영, 2001, 『지질학사전』(서울 : 교학연구사)
- 鈴木公雄, 1989, 『貝塚の考古學』東京大學出版會
- 兪炳一, 1992, 「馬山縣洞Ⅲ地域 貝塚調査報告」『韓國上古史學報』10, 韓國上古史學會
- 兪炳一, 1998, 『原三國時代 貝塚出土 動物遺體와 骨角器의 研究』東義大學校碩士學位論文
- 兪炳一, 2000, 「昌原 內洞貝塚에서 출토한 사슴뼈에 대한 一考察」『인문과학연구』5, 동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尹武炳 外, 「梁山 多芳里貝塚 發掘調查報告」『清堂洞』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 25책
- 李東注, 1996, 「3. 考察」『鎭海龍院遺蹟』東亞大學校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24冊
- 李相吉, 2000, 「廢棄에 관한 考古學的 檢討」『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20周年 紀念論叢』慶北大學校 人文大學 考古人類學科
- 李盛周·金亨坤, 1989, 『馬山 縣洞遺蹟』, 昌原大學校博物館 學術調查報告 第3冊
- 李盛周, 1998, 「韓國의 環濠聚落」『환호취락과 농경사회의 형성』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3회 합동고고학회 발표문
- 李柱憲·金大成, 1994, 「昌原 加音丁洞古墳群 發掘調查報告」『昌原加音丁洞遺蹟』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學術調查報告 第2輯
- 李柱憲·兪炳一·金良美, 1994, 「昌原加音丁洞貝塚發掘調查報告書」『昌原加音丁洞遺蹟』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學術調查報告 第2輯
- 李賢惠, 1996, 「金海地域의 古代 聚落과 城」『韓國古代史論叢』8, (서울 : 駕洛國史開發研究院)
- 李熙濬, 1986, 「相對年代決定法의 一考察」『嶺南考古學』2, 嶺南考古學會
- 昌原大學校博物館, 1995, 『昌原市文化遺蹟精密地表調查報告書』, 學術調查報告 第7輯
- 昌原大學校博物館, 1998, 『昌原의 先史·古代 聚落』昌原大學校박물관 圖錄
- 秋淵植, 1993, 「貝塚의 形成過程」『韓國考古學報』29, 韓國考古學會
- 崔鍾圭, 1990, 「廣場에 對한 認識」『歷史教育論文集』13·14, 歷史教育學會
- 崔鍾圭, 1995, 「金海期貝塚의 立地」『三韓考古學研究』(서울 : 書景文化社)
- 韓炳三·李建茂, 1976, 『朝島貝塚』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9冊

## A Study on the Stratification Formation of Shell Middens

Yoo, Byeong-II

Shell middens, so called waste sites, are the remains made by files of wastes after the sources are used from the natural and artificial environment. The relic things, excavated in shell middens are usually found to be broken and hard to recognize the original shape because those had been abandoned from the residential places.

In the wide meaning, shell middens can be one source of constituting the residential places, so the information about shell mounds must be proper to reason the dwellers' life style and ways.

This report deals with 'layer location', the most basic thing among many informations of the Shell middens

At first, the categories of shell-middens' layer location are classified on the basis of layers, deposited by the human beings' acts, as the powdered shell layer, the shell-layer of shells mixed with soil, the shell layer with whole-shaped shells, and the clay layer.

The next is about types of classification in the layers. which are horizontal deposition type and vertical deposition type.

In the horizontal types, there are the first spotted type, found to be deposited in the several places on the slide of the independent mound, the second spotted type, shown at the some places on the mound-slide connected to the mountain area, and independent type. which has the only one deposition spot around the residential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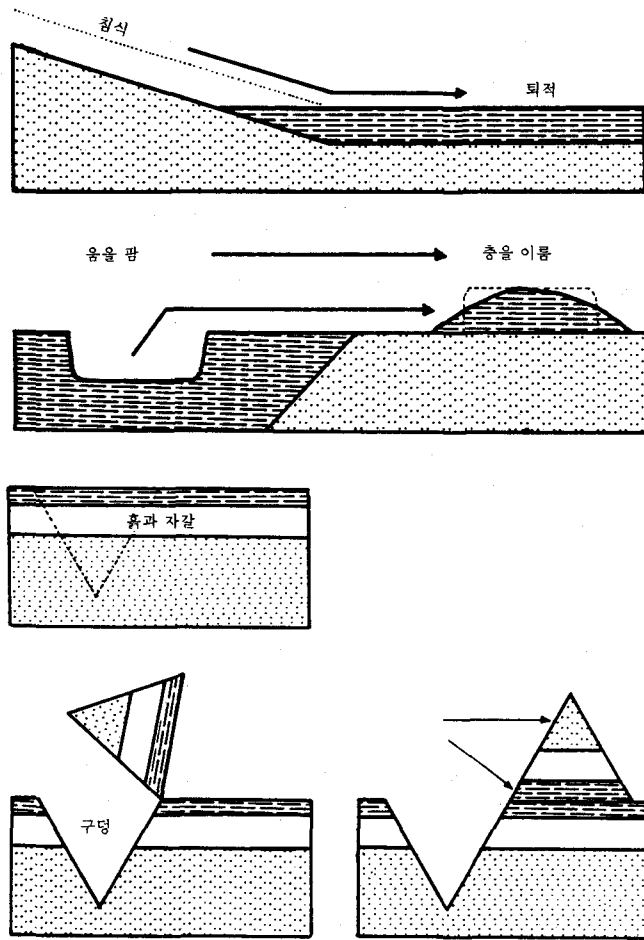
The vertical types, classified as the features of the ground forming the shell mounds contains the first type which used the old topography, the second type having been deposited from on the previous generation's deposition place and the third that used the artificially digged depression.

After that, the report says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the layer formation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deposit's wasted places. To prove it, the report reviews about the formation reason and forming sources of the deposits on the basis of the four layers, the powdered shell layer, the shell-layer of shells mixed with soil, the shell layer with whole-shaped shells, and the clay layer which are the foundation of the concept of lay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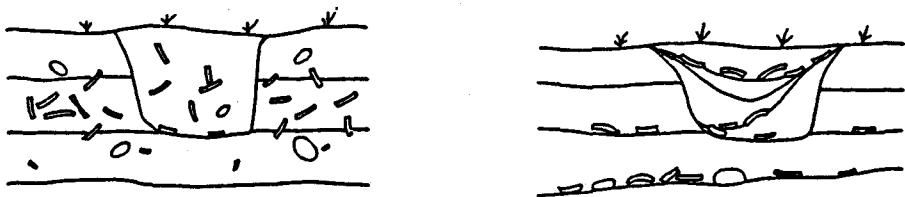
At last, to see what kinds of the Shell middens and its size can represent some areas and what is the relativity between the relics of the areas, the report compares to review the two areas, Kimhae and Changwon.

The result is that the shell middens representing an area should be located on the top of a hill, and have fine conditions for inside and outside cultural interchanges and productive activity around the environs. Also, the forming period of the shell mound must be long as formed to be spotted type, and the remains have to be complex one containing a shell middens.

[Key Word] Shell Midden, Stratification, Interspersion, Location, Accumulation, Was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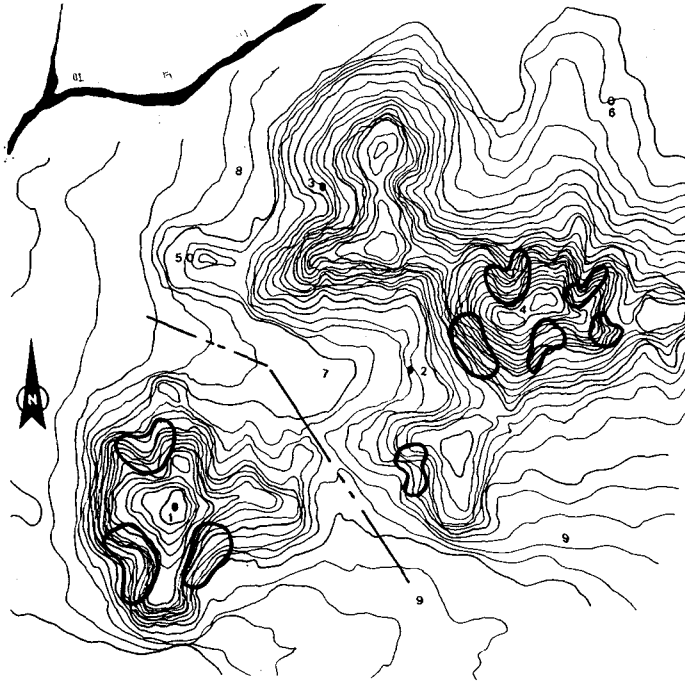


1-a. 지질 층위와 문화 층위의 비교(신숙정, 1994: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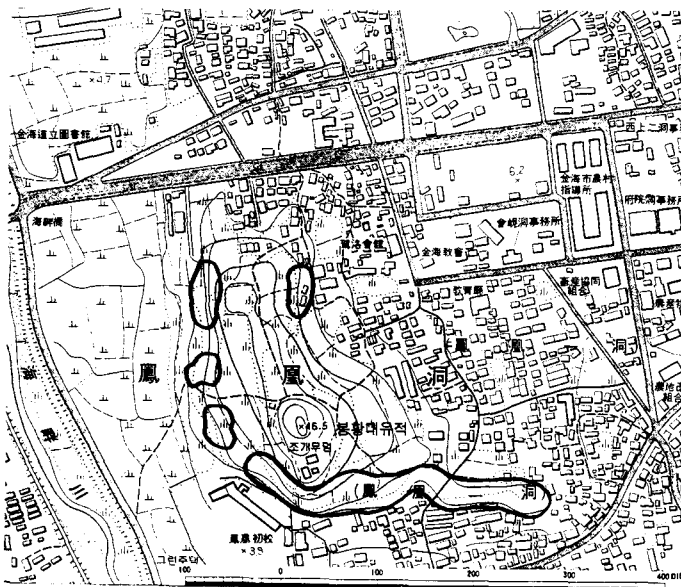


1-b. 유물 포함층(왼쪽)과 문화 층위(오른쪽)의 유형(이희준, 1986:8)

삽도1. 고고학 층위와 지질학 층위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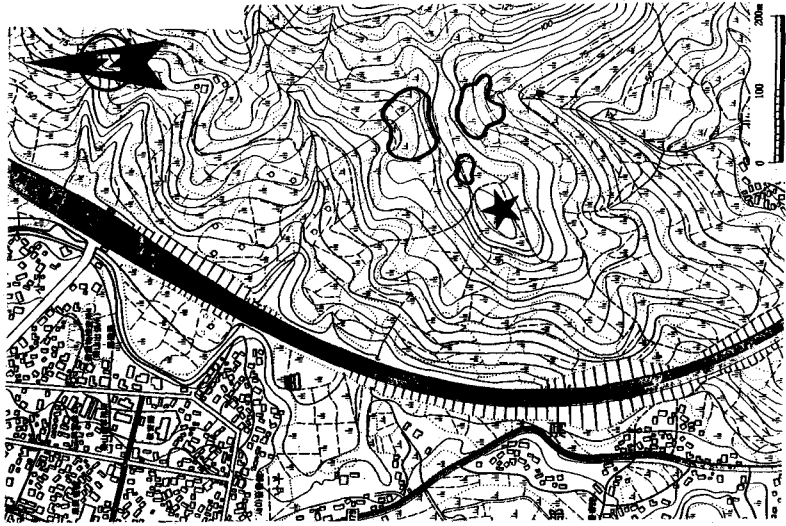


2-a. 외동성산 패총(좌)과 가음정동 패총(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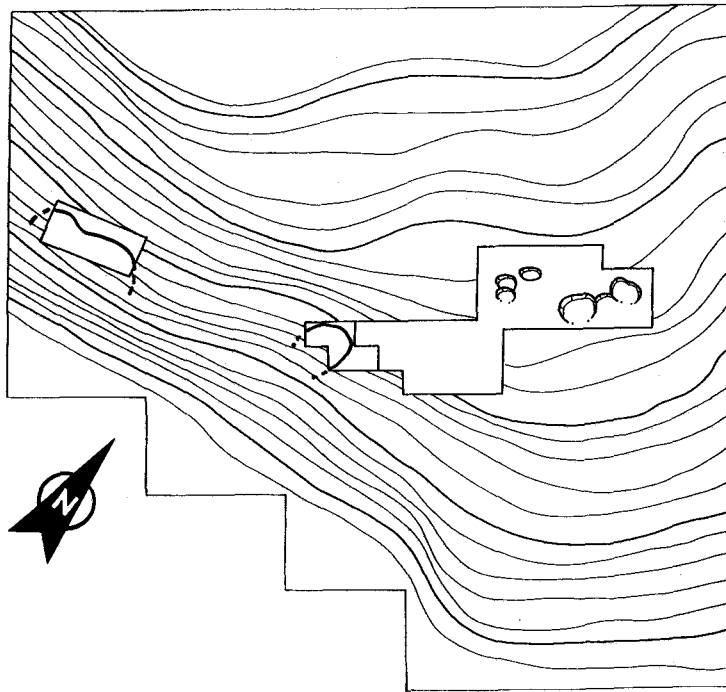


2-b. 김해 봉황대 패총

삼도2. 점재 I 형 패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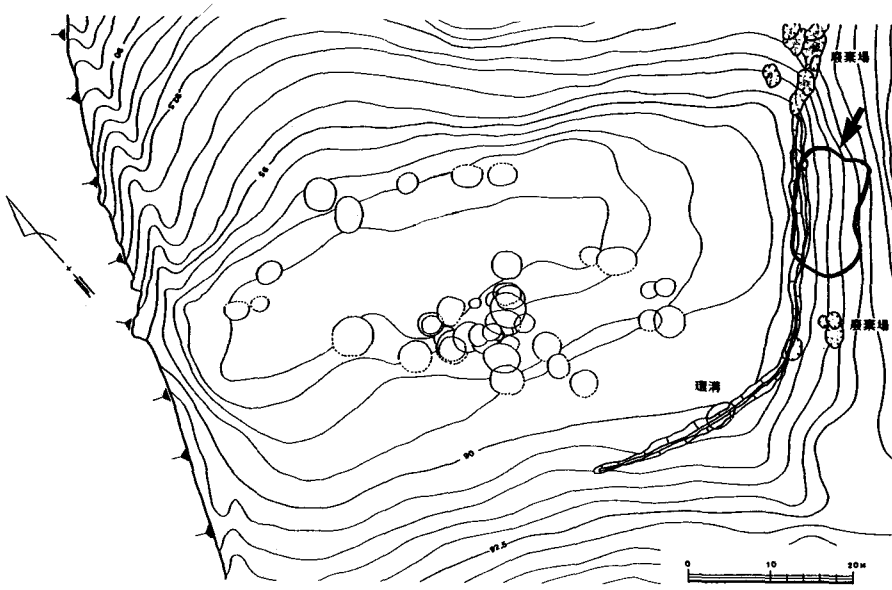


3-a. 양산 다방리 패총(점재 I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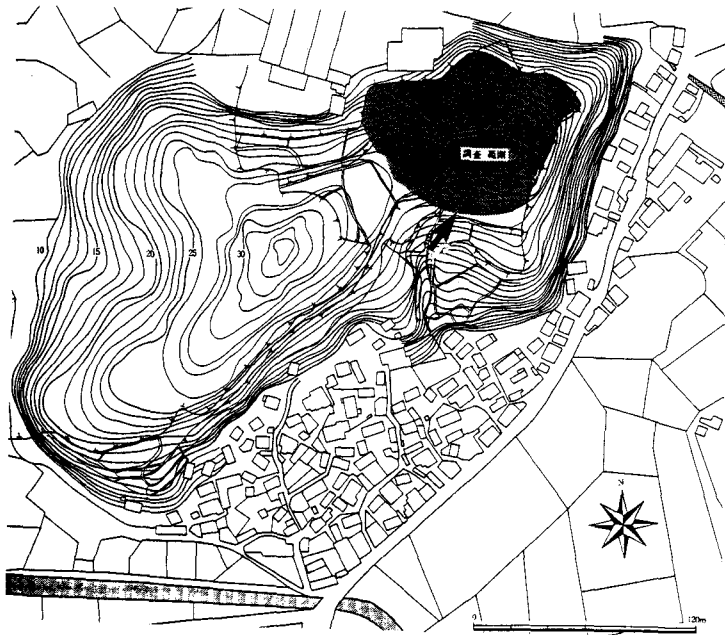


3-b. 마산 현동Ⅲ(우)·Ⅳ지구(좌) 패총(점재 Ⅱ형)

삽도3. 점재 I형 및 Ⅱ형 패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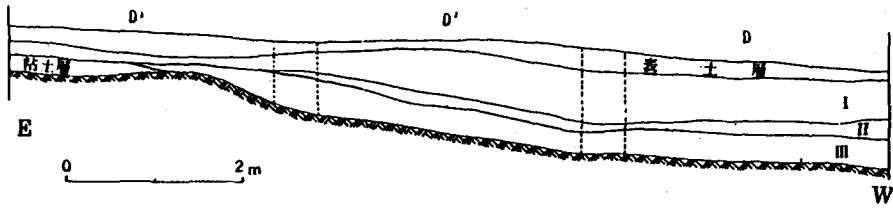


4-a. 창원 남산 패총·주거지·폐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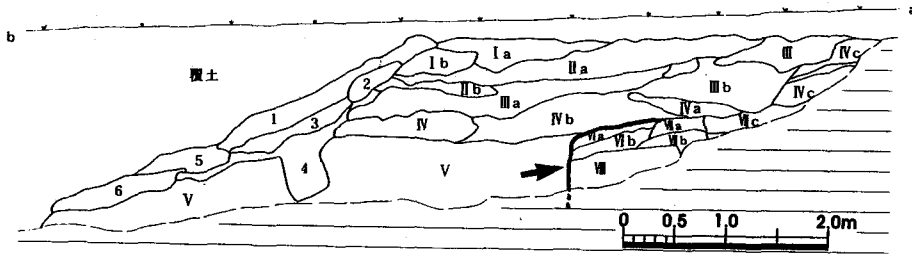


4-b. 진해 용원 패총(화살표)과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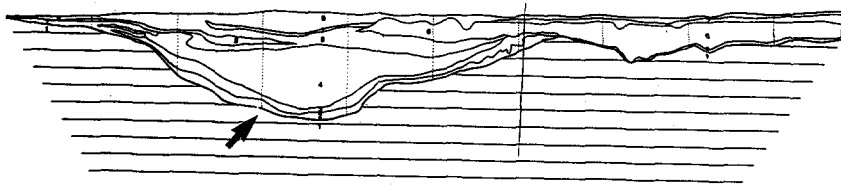
삼도4. 단독형의 패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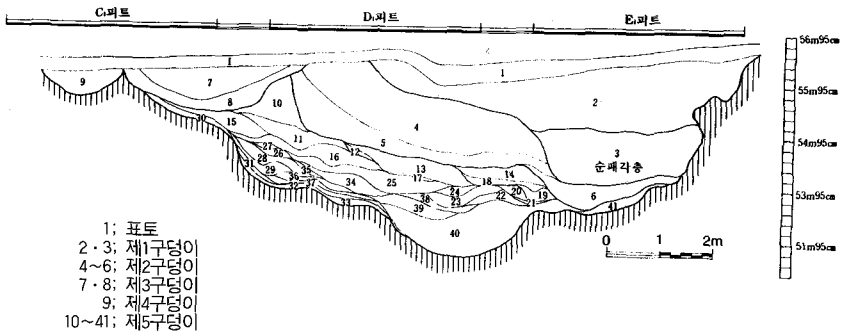
5-a. 구 지표면을 이용한 경우(조도패총)



5-b. 선대유구 상면을 이용한 경우(봉황대패총 1프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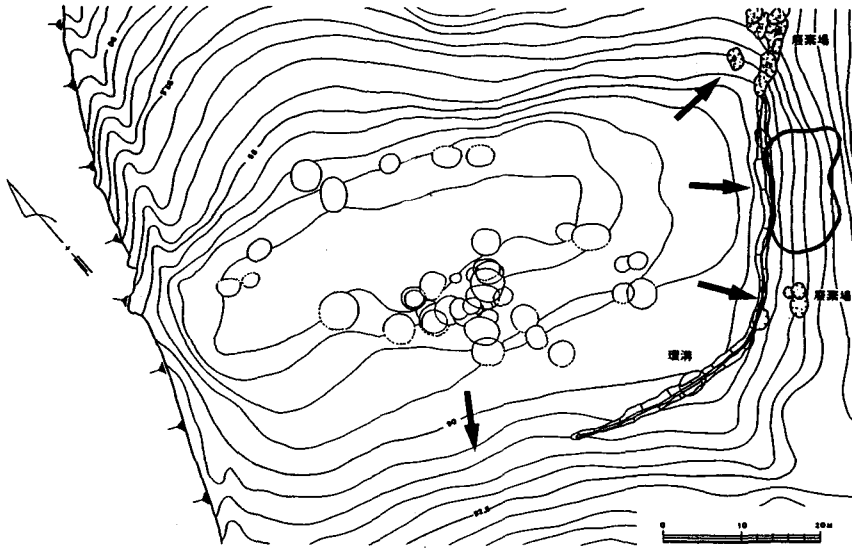
5-c. 구덩이를 이용한 경우(창원 내동 패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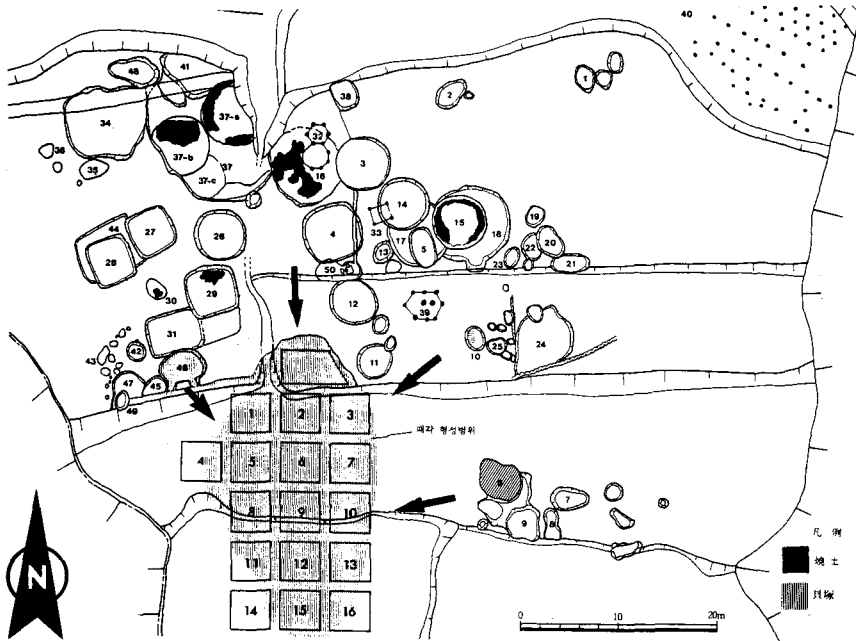
5-d. 구덩이를 재굴착하여 이용한 경우(마산현동 10지구 패총)

삽도5. 패총 층위의 수직퇴적 제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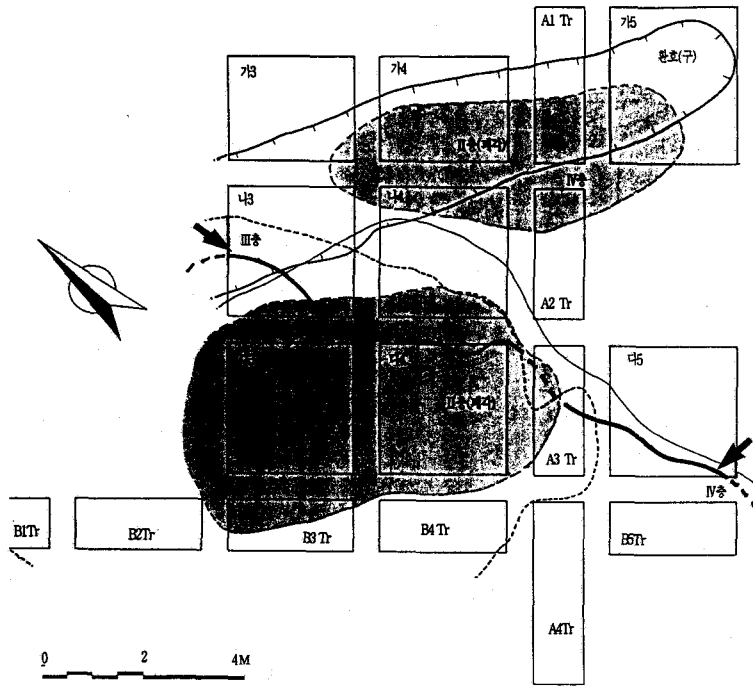


6-a. 남산 유적의 폐기장소와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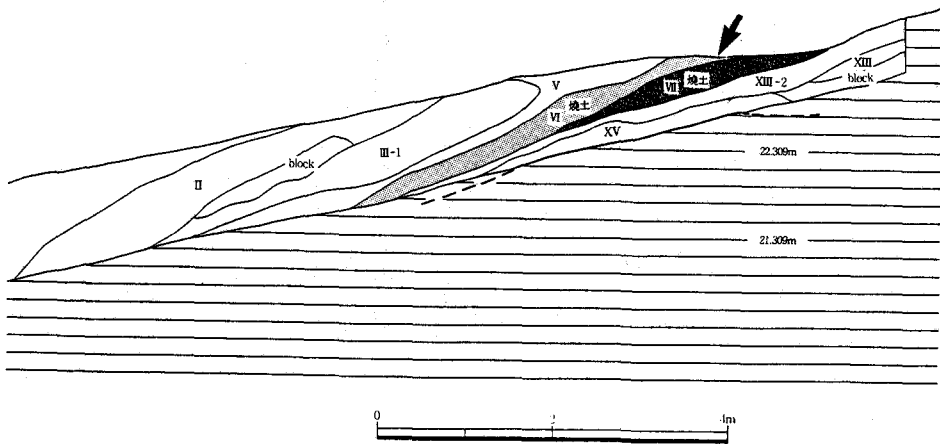


6-b. 용원 유적의 폐기장소와 방향

삽도6. 구릉정상부 입지 유적의 폐기장소와 행위 방향



7-a. 가음정동 패총의 패분층(화살표)과 패각층의 분포모습



7-b. 용원패총의 소토층 퇴적모습(제3·7·10pit서벽)

삼도7. 패분층과 소토층의 퇴적모습